'모범형사' 기대되는 라인업 완성

손현주·장승조·이엘리야·오정세·지승현

JTBC 새 월화드라마…오는 4월 방영 예정

JTBC '모범형사'가 기대감을 불어넣는 라인업을 완성했다. 손현주, 장승조, 이엘리야에 이어 오정세와 지승현까지, 이름만으로도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내는 완벽 캐스팅을 확정한 것.

JTBC 새 월화드라마 '모범형사'(극본 최진원/연출 조남국)는 달라도 너무 다른 두 형사가 은폐된 하나의 진실을 추적하는 통쾌한 수사극. 존재감과 연기력을 모두 갖춘 배우 손현주, 장승조, 이엘리야와 함께 만능 치트키로 떠오른 오정세와 지승현이 합류했다. 어떤 역할을 맡겨도 찰떡같이 소화해내는 믿고 보는 배우들의 조합은 벌써부터 4월이 기다려지는 이유가 됐다.

손현주와 장승조는 달라도 너무 다른 두 형사 강도창과 오지혁으로 만났다. 동네 아저씨 같은 친숙함을 뿜어내는 강도창은 아쉬운 게 많은 생계형 동네 형사. 반면 고급스러운 수트로 궁금증을 유발하는 오지혁은 큰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막대한 재산이 있는 보기 드문 엘리트 부자 형사다. 덕분에 돈과 권력에 흔들리지 않고 사건의 실체만 좇는 냉철한 수사를 펼칠 예정이라고. 이엘리야가 연기하는 진서경은 4대 일간지 중 하나인 정한일보 인천지역 기자로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뚝심 있게 밀어붙일 줄 아는 인물이다.

여기에 차기작에 대한 방송가 안팎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오정세와 다양한 작품에서 전방위 활약을 펼치고 있는 지승현의 합류로 라인업이 더욱 탄탄해졌다. 먼저 오정세는 오종태 역으로 또 한 번의 파격적인 연기 변신을 예고했다. 오지혁의 사촌 형으로 재산이 곧 그 인간의 가치라고 여기는 인물. 뽀글머리와 가죽점퍼는 이미 전작의 그림자를 완벽하게 지운 모습이다. 지승현은 정한일보 사회부 부장 유정석을 맡았다. 현역 사회부 기자 시절 그가 썼던 기사들이 후배들에게 전설로 남았을 만큼, 모든 기자들의 존경과 신뢰를 받고 있다.

이렇듯 각각의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하며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알린 손현주, 장승조, 이엘리야, 오정세, 지승현. 극중 이미지를 엿볼 수 있는 스틸컷이 첫 공개돼 시선을 끈다. 제작진은 "말 그대로 믿고 보는 연기파 배우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형사와 기자 등 각각의 개성과 특징이 살아있는 캐릭터를 보장된 연기력으로 승화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들의 연기로 완성될 생생하고 짜임새 있는 이야기를 준비해 시청자분들에게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모범형사'는 장르물의 대가 조남국 감독과 명품 배우 손현주가 '황금의 제국', '추적자 THE CHASER' 이후 세 번째 호흡을 맞추는 작품으로 흥행과 작품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것으로 또 한번 기대를 모으고 있다. '언터처블', '복면검사', '빅맨'의 최진원 작가가 집필을 맡아 완성도를 더할 예정이다. '날씨가 좋으면 찾아가겠어요' 후속으로 오는 4월 JTBC에서 방영될 예정이다.

유재석→이병헌…코로나19 극복 위해 연예계 기부 릴레이

"코로나19 확산의 심각성에 깊이 공감하며 모두가 힘을 모으기를 소망해 기부를 결정하게 됐습니다."(이병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피해 극복을 위한 기부를 통해 스타들의 온정이 사회 곳곳에 전해지고 있다. 배우 박서준과 이영애, 김고은, 방송인 장성규, 트로트 가수 송가인에 이어 연예인들의 기부가 계속되고 있어 이목을 집중시킨다.

먼저 방송인 유재석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1억원의 성금을 기부했다는 사실이 지난 25일 전해졌다. 유재석은 그간 꾸준히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기부를 이어온 대표적 선행 아이콘으로, 이번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증가하자 이 같은 기부를 결심해 주위를 훈훈하게 했다.

배우 이병헌도 이날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극복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에 성금 1억을 쾌척했다. 이병헌은 "코로나19 확산의 심각성에 깊이 공감하며 모두가 힘을 모으기를 소망해 기부를 결정하게 됐다"며 지역사회에 힘을 보탰다.

배우 신민아는 지난 25일 사랑의 열매 측에 1억 원을 기부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소속사 에이엠 엔터테인먼트 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노력하는 의료진과 취약계층 예방을 위함"이라고 밝혔다.

가수 이승환도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전국재해구협회에 3000만원을 기부한 내역을 공개했다. 그는 "모두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모으고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우리였습니다"라며 "힘내세요 모두. 고마워요 질병관리본부"라는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가수 선미는 2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의료진을 위한 기부금으로 희망브리지 재해구호협회에 1000만원을 성금한 내역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희망브리지 재해구호협회를 통해 기부했다. 의료진의 안전에도 힘써달라"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이에 앞서 배우 윤세아도 지난 2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아버지의 고향. 제가 난 곳 입니다. 힘내세요. 대구!"라는 글을 올리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구지사에 1000만원을 기부한 내역을 사진으로 공개하기도 했다.

또한 배우 박해진은 지난 23일 진행된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에서 마련한 '국민예방 코로나19 안전수칙' 영상촬영에 직접 출연하며 재능 기부했다. 앞서 소방청 대국민 화재안전수칙 영상에 이어 연이은 두 번째 재능기부로 박해진은 두 영상 모두 출연 및 제작비 전액을 기부했다.

이성경 "모든것 좋았던 '김사부2'…가장 성장한 작품"

배우 이성경이 '낭만닥터 김사부2'를 마치며 소감을 전했다.

지난 25일 화제 속에 막을 내린 SBS 월화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2'(극본 강은경/연출 유인식 이길복)에서 이성경은 수술실 트라우마를 지녔지만 돌담병원에서 김사부(한석규 분)를 만나 성장해 나가는 닥터 차은재로 열연했다.

이성경은 때론 능청스러운 연기와 돌담 식구들과의 코믹한 케미로 웃음을 선사했고, 때론 짠내 나는 감정 연기와 속 시원한 사이다 발언으로 시청자의 공감과 응원을 받았다.

특히 마지막화에서는 고난이도 수술도 멋있게 척척 해내며 실력 있는 의사로서 진가를 발휘했다. 또한 우진(안효섭 분)과의 진한 키스신으로 드디어 둘 사이 로맨스가 급진전되면서 안방극장을 핑크빛으로 물들였다.

입체적인 성장형 캐릭터를 완성해낸 이성경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촬영을 마친 소감은.

▶돌담병원을 떠나기 너무 아쉽다. 처음부터 다시 '리셋' 해서 계속 촬영하고 싶은 마음이다. 대본과 연출, 배우들의 팀워크까지 너무나 과분하게 좋았다. 모든 것이 좋았던 작품이라 끝나고도 한참동안 아쉽고 그리울 것 같다.

-이번 작품을 촬영하면서 가장 '낭만적' 이었던 기억이 있다면?

▶정말 매 순간이 낭만적이었다. 체력적으로 힘들면 정신적으로도 힘들기 마련인데, 그 모든 것을 이겨낼 만큼 행복하고 따뜻했던 돌담병원의 기억만 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장면은?

▶은재가 극중 엄마에게 속내를 털어놓는 장면이 아무래도 기억에 남는다. 나름의 성장통을 겪어 나가고 있는 은재가 자신을 가두고 있던 것에서 벗어나 깨어지는 지점이다. 연기하는 입장에서도 공감이 되고 몰입이 많이 된 장면이라 특별했다.

-한석규 배우가 실제로도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조언들을 해주셨는지.

▶연기가 진솔 해야한다는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다. 그 진솔함을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끔 후배의 입장에서 항상 같이 고민 해주셨다. 그런데 사실 사부님이 연기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배움이 됐다. 선배님과 눈을 마주치며 연기하는 매 순간이 뜨거웠고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다.

-안효섭 배우 그리고 돌담식구들과의 케미도 좋았다. 실제로도 다들 친해졌을 것 같은데 어떤가.

▶돌담 멤버들 모두가 정말 가족처럼 친해졌다. 촬영장 분위기도 물론 너무 좋았지만, 촬영이 끝나면 틈틈이 다같이 모여서 방송을 보기도 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 그래서 더 많은 추억이 쌓인 것 같다.

-' 낭만닥터 김사부2'는 이성경에게 어떤 의미로 남을 것 같은지.

▶은재와 마찬가지로 저에게도 가장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작품으로 기억될 것 같다. 경험이 부족해서 혹은 두려움과 부담감으로 인해 집중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조금씩 걷어내고 배우로서의 자세나 연기적인 고민을 많이 할 수 있게 해준 작품이다.

-마지막으로시청자분께 한마디.

▶우선 드라마를 너무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은재의 성장을 지켜보면서 함께 울고 웃어 주셔서 감사드린다. '낭만닥터 김사부2'가 저에게 큰 위로가 된 작품이다. 여러분께도 여운이 남는 작품으로 기억됐으면 좋겠다. 저도 이곳에서 받은 좋은 에너지를 잘 간직하고 발전시켜서 더 좋은 작품으로 찾아 뵙겠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진서연, 마스크 폭리 현상에 "가만히 있는 정부" 비판…네티즌 갑론을박

"할 수 있는 모든 욕 하고 모든 죄를 묻게 해야 해"

배우 진서연이 마스크 폭리 현상에 정부를 비판했다.

진서연은 26일 자신의 SNS 스토리에 '워킹데드와 뭐가 다르냐'며 마스크 판매로 폭리를 취하는 온라인 판매 사진을 올렸다.

그는 "쓰레기 같은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들"이라며 "사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판에 버젓이 말도 안되는 폭리를 취하는데 정부가 가만히 있다"고 비판했다.

또 "할 수 있는 모든 욕을 하고 모든 죄를 묻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서연의 SNS에는 해당 스토리가 사라진 상태이며, 그의 게시물에는 많은 네티즌이 몰려와 "소신발언 응원한다"와 "애쓰고 있는 정부인데, 함부로 말하지 말라" 등의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유지태x이보영, '훈훈' 대본 리딩 현장

tvN 새 토일드라마 '화양연화-삶이 꽃이 되는 순간'

'화양연화'의 훈훈한 분위기가 묻어나는 대본 리딩 현장이 최초 공개됐다.

tvN 새 토일드라마 '화양연화-삶이 꽃이 되는 순간'(극본 전희영/ 연출 손정현) 측은 유지태 이보영 박진영 전소니 등이 참석한 대본 리딩 현장 사진을 26일 공개했다.

'화양연화-삶이 꽃이 되는 순간'(이하 '화양연화')은 아름다운 첫사랑이 지나고 모든 것이 뒤바뀐 채 다시 만난 재현(유지태 분)과 지수(이보영 분)가 가장 빛나는 시절의 자신을 마주하며 그리는 마지막 러브레터다.

최근 진행된 대본리딩 현장에는 '화양연화'를 이끌어갈 주역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키스 먼저 할까요?' '그래 그런거야' '세 번 결혼하는 여자' '내 연애의 모든 것' 등을 연출한 손정현 감독과 인물들의 섬세한 감정을 그려내며 주목받기 시작한 전희영 작가가 의기투합해 남다른 분위기의 멜로드라마를 기대하게 한다.

여기에 깊이 있는 연기로 안방극장을 사로잡을 유지태(한재현 역), 이보영(윤지수 역), 박진영(과거 재현 역), 전소니(과거 지수 역) 등 믿고 보는 배우들이 참석해 올 봄 시청자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 단 하나의 감성 멜로의 시작을 알렸다.

먼저 인사에 나선 손정현 감독은 "관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공감과 위로가 아닐까 생각한다"며, '화양연화'가 모두에게 공감과 위로로 다가가는 드라마가 되기를 바란다는 포부와 기대를 전했다. 전희영 작가 역시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드라마가 '화양연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해 현장에 훈훈한 분위기를 전파했다.

본격적으로 리딩이 시작되자 배우들은 캐릭터 그 자체에 녹아들어 몰입도를 단번에 끌어올렸다. 냉철한 기업가 한재현으로 분한 유지태와 비정규직 워킹맘으로 살아가는 윤지수 역을 맡은 이보영은 섬세하고 미묘한 감정선을 맞춰가기 시작, 첫사랑과의 운명적 재회로 소용돌이치는 복잡한 심경을 표현해냈다.

박진영(GOT7)과 전소니 역시 순수했던 젊은 날의 한재현과 윤지수로 분해 싱그럽고 통통 튀는 케미를 보여줬다. 한편 '화양연화'는 '하이바이,마마!' 후속으로 오는 4월 방송을 앞두고 있다.